

KLPGA 임원 입후보 출마 포부서

인사드립니다.

이사후보 노양숙 프로입니다.

저는 몇 번의 대의원과 상별위원을 보냈습니다.

임회이후 훌륭한 선후배를 만나면서 더 큰 자부심이 생기고,
KLPGA멤버로 더없이 기쁘고 행복했습니다. 그러나 대의원과
상별위원을 보내며 소통과 발전 협업 보다는 협회의 투어선수들의
업적과는 다르게 가는 아쉬움도 있었습니다. 이사로서 올바른 질문을
하고 그 과정에서 올바른 답을 내어 회원들이 주인공인 협회로
거듭나길 소망하며 출마 합니다.

저는 미래의 협회를 위해 나왔다.

첫째, 회원들의 질문에 대답하는 이사가 되겠습니다.

회원들의 질문에 ‘몰라서’ ‘글쎄요’ 라는 말로 저를 변명하지 않게
답하겠습니다. 회원들과의 소통의 창구를 다시 만들겠습니다.

둘째, 전 투어의 환경을 좀 더 좋은 환경으로 이끌겠습니다.

각 리그의 특징점을 살린 환경의 개선으로 투어 생활의또다른
즐거움을 드리겠습니다.

셋째, 저희 협회의 살림을 살찌우겠습니다.

예산계획과 집행이 현재 그리고 미래회원들에게 부끄럽지 않게
면밀히 살피며 그과정에서 회원들의 의견을 듣는 방법을 찾겠습니다.

우리 회원들은 투어선수로,훌륭한 지도자로 개인사업자등 다양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속에서 우리가 삶에서 가장큰 자부심은 klpga

회원이라는 자부심일 것입니다.

우리 협회가 회원 한명한명에게 더 큰 힘을 실어줄수 있는 든든한
협회로 거듭나는데에 앞장서 힘을 보태는 자가 되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협회의 모든일에 응원과 애정을 보내주시는 많은 선후배님들에게
다시한번 감사 드리며 , KLPGA멤버들 행복한 파이팅!을 외쳐봅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 2 월 28 일

성 명 : 노 양



사단법인 한국여자프로골프협회 귀중